

2015

연구보고서-1

I S S U E P A P E R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수행과제명 •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과제책임자 • 최인희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수행과제명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과제책임자  최인희 연구위원

 Tel: 02-3156-7105

 e-mail: inhchoi@kwdimail.re.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가족 형태 중 하나이자 젠더 및 가족사회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함의를 가진 집단인 무자녀 부부가족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2000, 2005, 2010)> 분석결과, 40대 이후의 무자녀 부부 비율은 지난 10년간 다소 증가했으나 해당 연령 내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가족구성 기피에 대한 경향은 대부분 혼인기피로 실현되고 있으며, 결혼 후 무자녀로 지내는 사례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심층면접조사 결과, 무자녀 부부가족의 형성동기는 대부분 난임이나 부부의 건강문제, 경제적 요인 등이었으며, 직업적 성취, 여가나 부부중심의 생활 영위 등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 특히 무자녀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최인희·김은지·이상림·정다운(2015). 무자녀 부부가족의 증가와 가족정책적 함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은 무자녀 부부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한편, 무자녀 부부가족은 유자녀 가족에 비해 자녀양육으로부터 자유롭고, 일·가정양립 갈등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비자발적 무자녀 부부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없음’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또한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는 ‘자녀 없음’이 향후 부부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후에 ‘자녀 없음’으로 인한 외로움과 본인을 돌봐줄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도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향후 무자녀 부부가족의 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1 배경 및 문제점

- 가족규모 및 형태의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한국에서도 이념형적 핵가족(부부+미혼자녀)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비정형가족인 부부가족은 1990년 8.4%에서 2010년 15.4%로 증가하는 등(통계청 보도자료, 2012.4.6) 가구 구성형태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변화에 관한 인구학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지만 비정형가족과 관련된 상당수의 연구는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문제’, ‘결핍’ 등 부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음. 또한, 비정형가족의 생활세계 및 내부 다양성을 가족사회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한 연구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1) 2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무자녀 부부가족의 규모를 추정하고,

이들과 유자녀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특성과 가족생활양식을 비교하고자 함.

- 2)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무자녀 부부가족의 무자녀 선택 동기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견해, 가족생활,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고, 가족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결과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주요 국가의 무자녀 부부가족 구성 비율 및 국내의 무자녀 부부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음.
- 2차 통계자료 분석: 무자녀 부부가족의 규모 및 변화 추세 파악, 무자녀 기혼자와 유자녀 기혼자의 특성 비교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2000, 2005, 201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2009, 2012)>, <2014년 생활시간조사> 등 표본 대표성이 확보된 2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무자녀 부부가족과 유자녀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가족생활상 등을 분석하였음.
- 심층면접(n=30): 2차 통계자료 분석에서 파악할 수 없는 무자녀 부부가족의 생활상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결혼기간 3년 이상, 35세 이상 기혼자 중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 및 남성 총 30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분야 학자 및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5회)를 개최하여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정책적 함의에 대한 자문의견을 수렴하였음.

① 2차 자료 분석결과

1)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¹⁾(2000, 2005, 2010) 분석결과

■ 무자녀 부부비율 분포 추이

- 우리나라에서 40대 이후의 무자녀 부부 비율은 지난 10년간 다소의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해당 연령 내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됨.

■ 무자녀 부부와 저출산

- 우리나라에서 30대부터 50대 사이 연령의 출산 무경험 여성(미혼+ 무자녀 기혼)들 중 무자녀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대에 머물고, 미혼 상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50대에 이르러서야 30%대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부부들 중 첫째아에서 출산을 멈추는 한자녀 부부 비율의 빠른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무자녀 부부 증가가 우리나라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작아짐. 이러한 결과는 무자녀 부부가 우리나라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줌.

■ 무자녀 부부의 혼인 안정성: 코호트 생잔을 분석

- 무자녀 부부에 대한 시계열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무자녀 부부 비율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이러한 수치 변화는 해당 연령 중 인구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령 진전에 따른

1) 본 분석에서 ‘무자녀 부부’는 1) 30세 이상 여성들 중, 2) 현재 혼인상태가 ‘유배우’ 상태이며, 3) 출산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례들을 추출한 후, 4) 가구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동거자녀가 있는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 분석에서는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지만 조사시점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경우도 ‘무자녀 부부’로 분류되었음.

코호트 사망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이들이 출산기가 상당부분 지난 연령이므로 무자녀 부부의 출산으로 인한 감소의 영향만으로 보기도 어려움.

- 이는 코호트 분석에서도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자녀 기혼 집단의 경우 전체적 생잔율이 유자녀 기혼 집단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두 집단 간의 생잔율 차이는 이혼율의 차이에 의하여 상당 부분 설명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무자녀 부부의 안정성이 유자녀 기혼자에 비해 크게 낮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들의 이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됨.

■ 무자녀 부부의 추가출산 계획

- <2010년 센서스 조사> 문항에는 추가출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무자녀 기혼 여성들 중에서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혹은 부부)’으로 명명하고,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봄.
- 무자녀 기혼여성들 중에서 앞으로 출산을 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연령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임. 30대 여성에서는 출산하겠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40대에 이르러서는 현재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급격히 늘어남. 50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무자녀 기혼여성들이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함.
- 이러한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출산계획 비율을 바탕으로 전체 인구에서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혹은 부부)’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함. 첫째, 전체 여성인구에서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혹은 부부)’ 비율은 1% 수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균일한 분포를 보이며, 둘째,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혹은 부부)’ 비율은 중년기에 이르러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 및 부부의 특성

- (학력수준)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 집단에서 대학이상 학력 비율이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남. 이는 40대 이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30대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임.
- (경제활동 참가율)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들은 30대에서는 비교 집단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였지만, 30대 후반에는 30대 초반에 비해 유자녀 기혼여성과의 격차가 다소 줄어들며, 그러나 40대부터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 유자녀 기혼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졌으며 50대 초반까지 그 격차는 계속 확대됨.
- (부부간 연령차) 선택적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부부간 연령 차이를 살펴보면 30대까지는 선택적 무자녀 부부의 연령차이가 더 높게 나타남. 그러나 부인의 가임기가 끝나거나 거의 완료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40대 이후에서는 유자녀 부부의 연령차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부 학력구성의 차이) 선택적 무자녀 부부의 학력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무자녀 부부들 중 부부 모두가 고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의 비율이 유자녀 부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부부 모두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유자녀 부부 집단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임. 특히, 무자녀 부부에서 여성의 학력이 더 높은 경우가 유자녀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이러한 패턴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남.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²⁾(2009, 2012) 분석결과

▣ 경제적 특성

- (월평균 가구소득) 선택적 무자녀 부부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 수준은 다른 유형의 부부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0대와 40대 모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임.
- (경제적 자립 정도) 40대 선택적 무자녀 부부가구의 낮은 소득수준을 반영하듯, 이들 집단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유자녀 부부의 경우에는 그 자립인식 수준이 30대와 40대에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선택적 무자녀 부부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결혼에 대한 인식 및 자녀 관련 가치관

-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선택적 무자녀 기혼여성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편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와 40대 각각 37.5%, 41.1%로 다른 유형의 응답자들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비율은 모든 부부유형이 30대 보다 40대에 더 높았으나, 선택적 무자녀 부부의 상승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 40대 선택적 무자녀 부부와 다른 유형 부부간 동의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자녀의 필요성) 선택적 무자녀 부부들은 비전통적 가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비율은 유자녀 부부 > 미출산 부부 > 선택적 무자녀 부부의 순으로 나타남.

2) 본 조사에서 ‘선택적 무자녀 부부’는 부부 모두 초혼인 부부들 가운데 1) 현재까지 자녀 출산 경험이 없고, 2) 현재 임신 중이 아니며, 3) 앞으로 추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하거나, 폐경·불임 등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출산에 대해 ‘생각중이다’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로 정의하였음.

■ 가족생활

- (가사노동 분담 정도) 선택적 무자녀 부부는 다른 유형의 부부, 특히 유자녀 부부에 비해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30대에서는 선택적 무자녀 부부 중 부인이 가사노동을 주로 맡는 경우가 81.3%로 유자녀 부부의 89.3%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40대에서도 각각 85.7%, 92.5%로 선택적 무자녀 부부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생활 만족도) 30대에서는 선택적 무자녀 부부(부인)의 부부 생활 만족도가 68.8%로 유자녀 부부의 부부 생활만족도 67.5%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지만, 미출산 부부의 83.6%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40대에서는 선택적 무자녀 부부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50.0%로, 미출산 부부(61.5%)는 물론, 유자녀 부부(59.3%)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유자녀 부부들은 무자녀 부부에 비해 가족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30대와 40대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남.

■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 선택적 무자녀 부부가 여가나 부부만의 생활 즐기기 등 가치관에 따른 판단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12.9%에 지나지 않았으나, 난임이나 부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2.7%에 달하였음.
- 이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여가나 부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으려한다는 응답이 유효 응답 중에서 34.4%를 차지했지만, 40대에서는 그 비율이 5.6%에 불과함. 반면 건강상의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0대에서는 77.6%에 이르고, 30대의 경우는 58.3%였음.

3) 2014년 생활시간조사³⁾ 분석결과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교육수준) 남녀 모두 학력수준은 전반적으로 무자녀 부부가족이 더 높았음. 남성의 경우 고졸이하 학력은 유자녀 남성 34.1%, 무자녀 남성 29.2%로 유자녀 남성이 더 높았던 반면, 4년제 대학 이상 학위자(유자녀 남성: 37.1%, 무자녀 남성: 41.5%)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유자녀 남성: 6.0%, 무자녀 남성: 8.6%)는 무자녀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음. 여성의 경우에도 고졸이하 학력은 유자녀 여성 37.2%, 무자녀 여성 30.8%로 유자녀 여성이 더 높았던 반면, 4년제 대학 이상 학위자,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무자녀 여성이 더 높았음(4년제 이상 유자녀: 27.9%, 무자녀: 32.0%, 석사 이상 유자녀: 4.5%, 무자녀: 7.1%).
- (맞벌이 여부) 유자녀 부부와 무자녀 부부 모두 맞벌이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유자녀 부부에 비해 무자녀 부부는 맞벌이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유자녀: 50.0%, 무자녀: 61.9%), 여성 외벌이 또는 부부 무직 또한 5.4%에 달하여 비전통적인 가족형태의 비율이 높았음.
- (종사상 지위) 취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무자녀 부부에게서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았고(유자녀 남성: 70.6%, 무자녀 남성: 75.2%, 유자녀 여성: 56.2%, 무자녀 여성: 66.4%), 자영업은 유자녀 부부에게서 비중이 높았음(유자녀 남성: 23.9%, 무자녀 남성: 16.1%, 유자녀 여성: 21.0%, 무자녀 여성: 10.7%).

3)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는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달리 자녀 출산경험 여부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녀양육을 끝낸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해 여성의 연령대를 4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음. 이에 본 분석에서는 무자녀 부부를 1) 30세 이상 45세 미만의 여성 및 그 배우자 중 2) 현재 혼인상태가 ‘유배우’이며, 3) 가구 내 동거하는 자녀 및 분거한 미혼자녀가 없는 사례로 정의하였음.

- (가구 소득수준) 평균적으로 유자녀 부부는 월 439만 8,700원, 무자녀 부부는 월 418만 3,000원의 가구소득을 보여 유자녀 부부가 약 21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무자녀 부부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자본이 가구소득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었음.
- (부부 개인소득) 가구소득 중 부부의 개인소득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유자녀 남성이(유자녀 남성: 385만 4,000원, 무자녀 남성: 332만 7,600원), 여성의 경우 무자녀 여성이(유자녀 여성: 132만 4,000원, 무자녀 여성: 173만 8,400원) 개인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무자녀 부부의 경우 유자녀 부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남성의 소득은 낮은 반면 여성이 그 소득을 일정이상 벌충하여,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가족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 생활시간: 전체 집단의 시간사용

- 남성은 자녀유무에 따라 시간사용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다만 돌봄노동에서 유자녀 남성이 다소 시간을 더 보내고(유자녀 남성: 0.6시간, 무자녀 남성: 0.1시간), 그만큼을 가사노동시간(유자녀 남성: 0.5시간, 무자녀 남성: 0.7시간)과 여가시간(유자녀 남성: 4.0시간, 무자녀 남성: 4.4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는 자녀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자녀가 없을 경우 여성들은 가사노동(유자녀 여성: 3.6시간, 무자녀 여성: 2.8시간)과 돌봄노동(유자녀 여성: 2.4시간, 무자녀 여성: 0.1시간)이 훨씬 적음. 이러한 시간을 개인유지시간(유자녀 여성: 11.1시간, 무자녀 여성: 11.6시간), 일시간(유자녀 여성: 2.7시간, 무자녀 여성: 4.6시간), 학습시간(유자녀 여성: 0.1시간, 무자녀 여성: 0.2시간), 여가시간(유자녀 여성: 4.0시간, 무자녀 여성: 4.8시간)에 사용함.

■ 생활시간: 맞벌이 여부별 시간사용

- 맞벌이 가족과 남성 외벌이 가족만을 대상으로 시간사용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들은 별이 형태와 관계없이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반면 여성들의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 유지 시간, 일 시간, 여가시간을 줄여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으며, 이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족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남. 남성 외벌이 가족의 무자녀 여성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편이었음.

■ 시간부족, 피곤함, 가사노동분담 만족도

- (만족도)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와 관련하여, 남성들의 경우 시간 부족, 피곤함, 가사노동분담 만족도에서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유자녀 여성이 무자녀 여성보다 시간부족과 피곤함,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 (시간부족 및 피곤함 이유) 시간부족과 피곤함의 이유에 대해서 남성들은 ‘직장 일’로 자녀유무와 관계없이 유사하였음(유자녀: 87.7%, 무자녀: 86.6%). 여성들의 경우는 자녀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여서, 유자녀 여성은 ‘자녀 보육, 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가장 높았고, ‘직장 일’이 30.3%였던 반면, 무자녀 여성은 61.3%가 ‘직장 일’이라고 응답하여 무자녀 남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시간사용 만족도 및 삶의 질 만족도

- 유자녀 여성들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와 시간사용 만족도는 오히려 무자녀 여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자녀 여성들이 시간 부족과 피곤을 느끼고 가사노동분담에 만족하지 못하는데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는 오히려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2 심층면접 결과

■ 무자녀 부부가족 형성 동기

- 무자녀 부부가족 형성 동기는 개인적 가치관 보다는 만혼, 난임, 자녀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등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음. 또한, 자녀출산은 여전히 부부가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 이행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음.
 -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친화적인 환경이 아님을 지적함. 구체적으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담과 함께 현재 우리사회가 자녀가 안전하고,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언급함.
-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에 도달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자녀 없음'이 이후 부부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

■ 무자녀 부부가족의 현재 생활상

-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양육' 과 관련된 부부간 갈등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갈등 수준이 낮고, 부부중심의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다만 부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화하거나 여가활동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불편함을 진술했으며, 상당수의 연구참여자가 무자녀 부부가족이 '자녀 없음'으로 인해 경험하는 소외감을 언급함.
- (부모와의 관계) 유자녀 가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부담이 적은 무자녀 부부가족이 출생순위, 성별 등에 관계없이 부모의 병원동행,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시간 및 부모역할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또한 일·가정양립 갈등을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음. 그러나, 임신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일부 여성 연구참여자의 경우 경제활동 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재취업이 불가능해졌다고 진술하며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정책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회적 관계망) 현재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친구는 직장동료라는 응답이 많았고, 노후를 위해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연구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무자녀에 대한 사회적 시선) 대부분의 무자녀 부부가족, 특히 무자녀 여성들은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 가족생활 및 노후에 대한 전망

- (혼인안정성에 대한 불안) ‘자녀 없음’이 본인의 혼인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도 있었으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없는 것이 이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 자체가 편견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노후에 대한 전망 및 준비) 노후에 대한 전망은 크게 경제적 측면과 외로움, 돌봄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렴되었음.
 - 경제적인 측면의 경우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다는 점에서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응답함.
 -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노후에 자녀 없음으로 인해 외로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때 돌봐줄 자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도 큰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정책지원 욕구

- 정책지원 욕구는 크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노년기 생활 지원정책 확대, 무자녀 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제시됨.

3 정책제언

제안 1) 무자녀 부부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증진

- ▣ 무자녀 부부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이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가족형태와 가족 생활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무자녀 부부가족 또한 다양한 삶의 조건들 속에서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출산’의 해법은 무자녀 부부에게 가해지는 암묵적인 사회적 압력보다는, 유자녀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안 2) 통계자료 구축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 ▣ ‘무자녀 부부가족’의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된 2차 통계자료는 매우 제한적임. 향후에는 무자녀 부부가족 등 비정형가족의 생활세계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양적 자료가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임.
- ▣ 무자녀 부부가족의 내부 다양성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의 가족생활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가족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즉, 무자녀 유형별로 이들의 생애주기와 가족생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가족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안 3) 난임부부 지원정책 강화

- 연구결과 아직까지 우리나라 무자녀 가족의 상당수는 불임, 건강상의 문제로 무자녀 부부가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6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일정 소득계층 이하에게 제공되는 선별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상당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구조이므로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또한, 난임시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이와 함께, 시술 과정에서 경험하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시술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심리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제안 4) 무자녀 부부가족 대상 가족정책 개발

-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분석결과 무자녀 부부가족의 혼인 안전성이 유자녀 기혼자에 비해 대단히 낮게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에서도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부부간 소원함 및 갈등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교육은 ‘부모교육’과 유자녀 부부가족을 전제로 설계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자녀 부부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제한적임. 무자녀 부부가족도 부부간 갈등, 이혼 위기 등을 경험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부부중심의 가족생활 영위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제안 5) 노후 돌봄 지원 정책 강화

- 심층면접에 참여한 상당수의 연구참여자는 양질의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과 정서적 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줄 지역사회 중심 돌봄

공동체 형성, 장례 등 사후 지원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와 함께, 노년기 이전에 축적한 사회적 관계망이 노년기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를 고려할 때 무자녀 부부가족이 함께 여가 및 문화생활을 공유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안 6)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 강화

-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 연구참여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임신을 위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게 된 경험을 진술했음. 이들은 계획했던 자녀 출산이 좌절되고, 재취업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며 상당수준의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홀벌이 가족이 되면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맡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상당수의 무자녀 여성들은 적극적인 재취업 의향을 표현하며 현행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제안 7)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 심층면접에 참여한 상당수의 무자녀 여성 및 남성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일·가정 양립 갈등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또한, <생활시간조사(2014)> 분석결과에서도 유자녀 여성들의 시간부족과 피곤함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 ▣ 우리나라 무자녀 부부가족에 대한 기초자료 생성 및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 모색.
- ▣ 무자녀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사업 개선 및 가족정책 개발의 시사점 도출.

참고자료

- 김승권·김유경·김혜련·박종서·손창균·최영준·김연우·이가은·윤아름
(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보도자료(2012.4.6).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
- 통계청(2000). 200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 통계청(2005).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통계청.
- 통계청(2015). 2014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통계청.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